

ESG 경영 확산에 따른 해외건설 영향 및 대응방안

2021.10. 6

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

목 차

I. ESG의 정의 및 대두 배경	1
II. ESG 확산이 해외건설시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 ..	2
III. 해외 매출액 상위 건설기업의 ESG 경영 평가 현황 ·	4
IV. ESG 관련 대응 현황	6
V. 향후 대응방안	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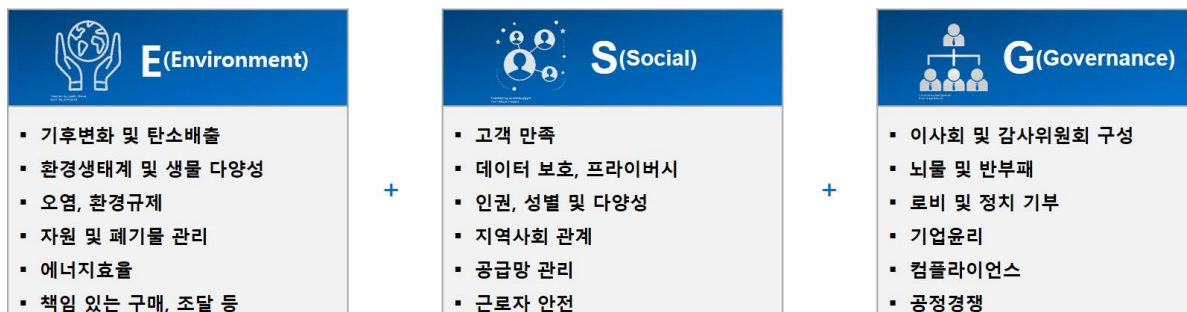
◆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ESG가 해외건설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, 단기·중장기 측면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

1 ESG의 정의 및 대두 배경

□ ESG의 정의

-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ESG는 **Environment(환경)**, **Social(사회)**, **Governance(지배구조)**의 첫 문자를 조합한 용어로,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
- 기업 경영의 핵심이었던 재무제표와 함께 ESG라는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,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경영활동인 ESG 경영이 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자리잡고 있음

< ESG 각 항목별 주요 요소 >



[출처 : 삼정KPMG, 해외건설협회]

□ 대두 배경

- ESG의 시초는 '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(WCED)가 채택한 '우리 공동의 미래(Our Common Future)'에서 정의된 '지속가능발전*'이라 할 수 있음

* 지속가능발전 :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자원,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,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발전을 의미

- '06년 UN 주도로 글로벌투자기관들이 가입한 UN 책임투자원칙(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, PRI)에서 투자 및 운용원칙으로 ESG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이슈로 대두

< ESG 발전 추이 >

구분	주요 내용
'87	세계환경개발위원회(WCED)가 '우리 공동의 미래(Our Common Future)'를 통해 '지속가능발전'의 개념을 정의·제시
'06	UN 책임투자원칙을 통해 투자, 자산 운용에 ESG를 고려한다는 원칙 발표
'16	GRI 표준(GRI Standards)을 정립하여, 경제, 환경, 사회 부문 등 기업·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
'17	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(TCFD)가 거버넌스, 전략, 리스크 관리, 지표 및 목표의 4가지 측면에서 재무정보공개 권고안 제시
'19	BRT(Business RoundTable)가 주주(Shareholder)를 최우선시했던 기업들이 모든 이해관계자(Stakeholder)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
'20	세계경제포럼(WEF), 지속가능성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백서 발간
'21	금융위원회 등은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을 위한 '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 방안' 발표

[출처 : 삼정KPMG, 해외건설협회]

2 ESG 확산이 해외건설시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

- 산업 전반에 탄소 저감, 사회 공헌, 투명한 지배구조 등 ESG 요소 반영의 필요성 증대 및 ESG 정보공개 의무 확대
 - (환경) 기후 변화, 탄소 감축, 폐기물 관리, 에너지 관련 규제
 - ① 사업 분야·모델 다변화 ② 폐기물 배출 저감시설 투자 증대 등
 - (사회) ① 인권·양성 평등 강조 ② 근로자 안전 중시 및 위반시 처벌 강화 ③ 사업 현장 인근 주민 삶의 질·고용 창출 강조 등
 - (지배구조) ① 이사회 운영 등의 투명성 ② 이해관계자 이익 존중 ③ 의사결정의 투명성 증대 등

□ 정부·발주처 관점

- (ESG 관련 규제·정책) 영국, 네덜란드 등 주요국 정부는 ESG 관련 규제·정책*을 지속 확대 중으로 '16~'18년 연평균증가율 103%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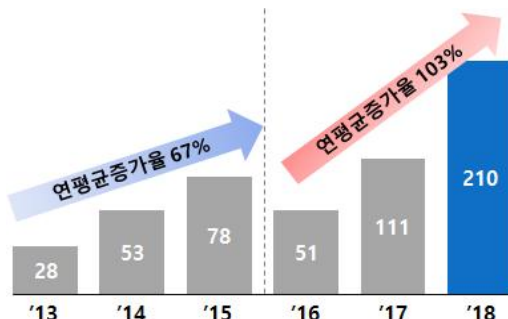
* ESG 관련 신규 규제·정책 수 : 28개('13년) → 78개('15년) → 210개('18년)

- (발주 공종) 주요국들은 Net-zero 2050* 등 적극적인 탄소저감 목표 설정에 따라, 석탄화력발전사업 등 환경·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큰 사업 발주를 지양

*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'20.12월 각국은 '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'을 제출 하였으며, 중국, 일본, 한국 등 주요국 정부는 '50년까지 탄소 제로화 추진 발표

- (입찰 평가) 선진국 내 발주사업을 중심으로 ESG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조치를 예상할 수 있으나, 아직 이에 대한 적극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

< ESG 신규 규제 및 정책건수 추이 >



[출처 : US Federal Register, ILO, 삼정KPMG]

< 주요국 ESG 규제 및 정책 >

연도	주요 내용
영국	· 2006년 「회사법」에서 모든 기업이 매년 Business Review에 근로자,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준수 여부를 감사하게 함
네덜란드	· 「민법」에서 상장·비상장기업 모두에게 '비재무적 공시의무'를 부과하고, 균형 잡힌 성별 표현을 위해 대기업 이사회 30%를 여성이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함
일본	· 2005년 「환경배려활동촉진법」은 특정 공공 법인에 환경 보고를 의무화하고, 일반기업에 대한 환경 보고서의 공시를 권고함

[출처 :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, 해외건설협회]

□ 금융기관 관점

- (국부펀드·연기금) 투자 대상 기업·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시 ESG 요소 반영 의무화, 스튜어드십 코드* 고려 강화

* 위탁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 견제 포함, 주주로서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원칙

- (다자개발은행) 투자 의사 결정시 ESG 핵심 요소 반영, 세계은행·아시아개발은행 등 석탄화력발전 투자 중단

- (신용평가사) 무디스(Moody's), 피치(Fitch)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환경 오염, 탄소 배출, 안전 및 보건, 리스크 관리 등 ESG 평가 결과를 기업신용등급에 반영
- (상업은행)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, 프랑스 BNP Paribas 등은 대출 심사를 할 때, 기업의 ESG 충족 정도를 대출 금리에 반영하는 지속가능연계대출(Sustainability Linked Loan, SLL) 확대 중



[출처 : Bloomberg, Sustainalytics, 해외건설협회]

< 지속가능연계대출 사례 >

금융기관	기업	총 금액	시기
SMBC, MUFG 등 4개	NYK line	500억엔	'19.11
BNP Paribas 등 3개	Telefónica	7.5억유로	'19.12
ING, HSBC 등 16개	Philips	10억유로	'17.4

[출처 : Bloomberg, Sustainalytics, 언론보도]

□ 사업주 관점

- (ESG 경영 체계) 해당 사업주의 주식에 투자한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사업주에게 ESG 준수를 요구함에 따라,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재무·비재무 성과를 통합한 목표·비전 수립 필요
- (사업 개발) 개도국 사업의 중요한 금융지원 수단인 다자개발은행(MDB), 수출신용기구(ECA), 글로벌상업은행이 ESG를 강조함에 따라 사업 공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

3 해외 매출액 상위 건설기업의 ESG 경영 평가 현황

- 글로벌시장조사업체 ENR 기준, 해외 매출액 상위 20개 건설기업의 MSCI ESG Rating 분석해 보면, MSCI ESG Rating을 보유한 기업은 스페인 ACS, 프랑스 Vinci 등 14개사로 나타남
- (A 이상) 스페인 ACS, 프랑스 Vinci 등 유럽 7개사

○ (B 이상 A 미만) 한국 A사, 중국 Railway Group 등 4개사

○ (C 이상 B 미만) 중국 Communication Con. 등 중국 3개사

□ 해외 매출액 21~50위 기업 중 한국, 일본기업 ESG 경영 평가 현황

○ (A 이상) 일본 Obayashi, Kajima 등 2개사

○ (B 이상 A 미만) 한국 B사 등 3개사

< 해외 매출액 상위 글로벌 건설기업의 MSCI ESG Ratings 현황 >

Rank	기업	Ratings	Rank	기업	Ratings
1	스페인 ACS	A	11	스페인 Ferrovial	A
2	독일 Hochtief	AA	12	중국 Railway Con.	B
3	프랑스 Vinci	A	13	중국 Railway Group	BB
4	중국 Communication Con.	CCC	14	한국 A	B
5	프랑스 Bouygues	AA	15	중국 Energy ENG.	CCC
6	오스트리아 Strabag	-	16	미국 Bechtel	-
7	중국 Power Con.	CCC	17	프랑스 Eiffage	AA
8	중국 State Con.	B	18	스페인 Técnicas Reunidas	-
9	스웨덴 Skanska	AA	19	이탈리아 Webuild	-
10	영국 Technip	-	20	영국 Petrofac	-

[출처 : ENR(2019년 매출액), MSCI, '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건설기업 ESG 활동 및 성과 사례' 등 자료 종합]

< 해외 매출액 상위 한국, 일본 건설기업의 MSCI ESG Ratings 현황 >

Rank	기업	MSCI ESG Ratings
24	일본 Obayashi	AA
29	일본 Kajima	A
33	한국 B	BB
36	한국 C	BBB
44	한국 D	BBB

[출처 : ENR(2019년 매출액), MSCI, '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건설기업 ESG 활동 및 성과 사례' 등 자료 종합]

4

ESG 관련 대응 현황

< 주요 해외 사례 >

- ◆ **(블랙록)** 투자사를 대상으로 한 회장 명의 연례서한 주요 내용 ① 기후 리스크를 투자 리스크로 인식 ② 매출액의 25% 이상을 석탄발전을 통해 달성시 투자를 중단 ③ ESG 관련 공시기준을 정하고 공시를 의무화 등 실질적 ESG 대응을 건인
- ◆ **(테슬라)** 코발트 채굴과정의 아동 노동 착취 및 환경오염 논란 해결을 위해 '19년 코발트 미사용 배터리 개발계획 발표
- ◆ **(구글, 애플, GM 등)** RE100('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% 전환하는 이니셔티브) 가입 후 신재생 자가발전 시행
- ◆ **(다농)** 기업 본연의 재무 성과보다 ESG를 과도하게 강조하다 실적 악화, 주가 폭락, 대량 해고 발생, CEO 경질

□ 정부·연기금

- '50년 탄소 제로화 목표 동참, 한국판 그린뉴딜 추진
- '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' 발표
- 국민연금('18) 및 우정사업본부('21)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

□ 금융기관

- **(적도원칙* (Equator Principles) 가입)** KDB산업은행('17), 신한은행('20), KB국민은행·우리은행·NH농협은행('21) 가입

* 적도원칙 : '03년 IFC, Citi group 등 세계 10개 금융회사간 협약으로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파괴,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행동협약

- **(ESG 채권)** ESG 채권 발행 잔액이 155조 7,080억원임. 연초 발행 잔액이 90조 1,770억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, 9개월 만에 65조 5,310억원(72.2%)이 증가함

□ 건설사

- (가) 비즈니스 모델 전환 ① 친환경사업부문 설립, ②폐기물처리 기업 인수
- (나) ① 해외 태양광 IPP 활성화 ② 수처리업체 인수 및 ③ 유럽 모듈러 건축업체 2개사 인수('20년)
- (다) 건설업계 최초 ESG 채권 발행('20. 7월, 1,200억원)

< 주요 신사업 계획 >

구분	주요 내용
오염토 정화사업	· 토양정화 원천기술·설계 역량 확보
원전 해체	· 원전 해체 분야 선진기업과 제휴를 통한 해체기술 확보 노력
플랫폼	· 데이터센터
기술 기반 수주	· 모듈 사업 확대, PC(Precast Concrete) 빌딩 제작 등 제조업화 기술 확대
자동화	· 자동 용접, 자동 케이블 설치, 다용도 로봇 개발
3D 프린팅 활용	· 3D 프린팅 기술 개발을 통한 건축물 제작
탄소 중립	· CCUS(이산화탄소 포집, 저장), 수소 사업 도입·활용
해외 모듈업체 인수	· 폴란드, 영국 업체 인수
Precast Concrete 사업	· 지자체와 Precast Concrete 공장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
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	· Inima가 보유한 수처리 기술 활용
Developer	· Developer 사업 확대 등 수익성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
친환경 사업	· 수소에너지+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 사업 추진
수처리 사업	· 중국 수처리 기업 지분 취득
드론 활용	· 스타트업 지분 30% 투자

[출처 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, ICAK 정책지원센터]

□ (단기) 기업 차원의 E, S, G 항목별 실천안 제시

○ 환경(E)

- 현장에 저탄소 콘크리트(Low carbon concrete) 사용, 폐기물 재활용
- 중장비를 하이브리드 모델로 교체, 에너지 소비량 측정용 센서 부착
- 유틸리티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, 카풀(Carpool) 플랫폼 활용
- 수소 등 대체연료를 사용한 유틸리티 차량 개발, 친환경에너지 생산

○ 사회(S)

- 포괄적 성장 촉진(Foster inclusive grow)을 목표로 책임감 있는 고용주 역할 강화, 직원 능력·기술 개발, 성과 공유제 활성화 추진
- 회사 내 양성 평등 촉진,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다양성 교육

○ 지배구조(G)

-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투명한 운영 등 지배구조 선진화
- 뇌물 및 반부패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윤리 적극 보급

□ (중·장기) ESG 관련 특화 사업 개발, ESG 강화 추세에 대응하면서 강점이 있는 분야 사업 발굴

< ESG 대응을 위한 해외 유망 사업군 >

공종	세부 분야	유망 사업군
산업설비	에너지	· 신재생 발전, 에너지저장시설(ESS) · 수소 생산·저장·운송 인프라, 원전 등
	폐기물처리·친환경소재	·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플랜트, 친환경 매립 · 친환경소재 제조 플랜트
토목	친환경·차세대 교통	· 대중교통(도시철도·버스체계), 지능형교통체계(ITS) · 전기차, 수소차 인프라
	전통 인프라	· 개발도상국 내 도로, 철도, 공항, 항만 분야 투자 · 개발형 사업
건축	도시개발·인프라	· 스마트시티, 도시재생, 사회주택, 의료·방역시설
	디지털·스마트	· 데이터센터, 물류시스템

□ (공통) 금융권의 수요가 높은 ESG 채권·펀드 적극 활용, 유·무상 원조 연계 복합금융 활용 확대